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20)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년 8월 19일 (수) 배포	매 수	자료 총 4매

코로나 이후 여행 숙박 : 3위 펜션, 2위 호텔, 1위는?

- 코로나19로 급감한 숙박여행, 6월 이후 점진적 회복세
- '가족/친구 집' 숙박이 '호텔', '펜션' 꺾고 1위 올라
- 급성장한 '캠핑/야영', 자녀가 있는 30-40대 선호
- 숙소 자체의 청결/편안함보다 자신의 통제권이 중요
- 평균 총 경비 1/2 수준인 '캠핑/야영', 급성장 가능성

숙박여행의 핵심은 잠자리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인 금년 2분기 국내 여행 시 이용 숙소는 작년 동기 3위였던 '가족/친구 집'이 '호텔'과 '펜션'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캠핑/야영'도 크게 증가해 상업적인 시설보다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자기 방역으로 코로나 감염의 불안도 덜고 여행비용도 크게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숙소의 선택 기준이 바뀌면 관광 산업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 6000명)'에서 코로나 전후 '숙박에 관한 행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했다.

■ 코로나 이후 숙박여행 기피현상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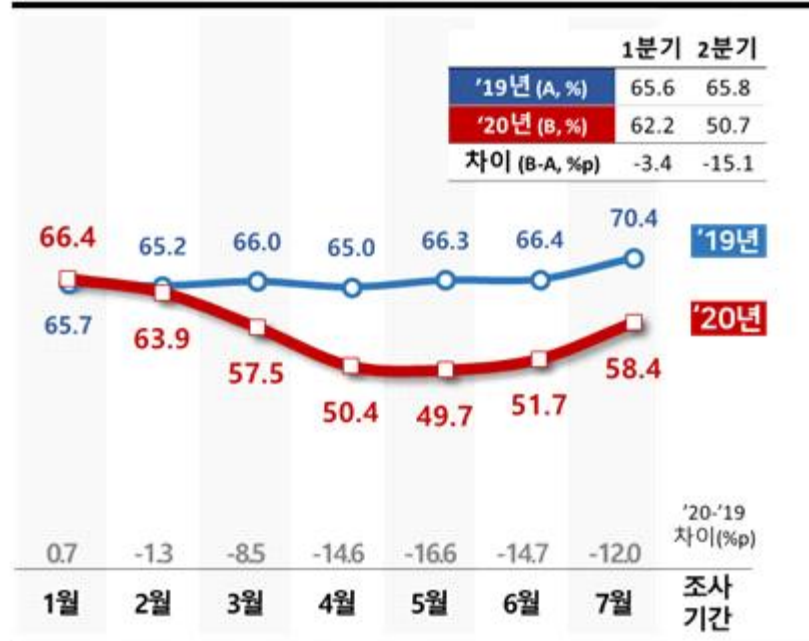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여행은 간절히 원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해외여행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도 숙박여행은 선뜻 나서기 어렵다. 코로나 확산 직후인 1월말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급감했고, 휴가 시즌인 7월 들어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은 예년과 차이가 크다. 숙박여행 경험률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1박 이상 여행 유무'를 묻은 결과다.

'20년 2분기 숙박여행 경험률은 50.7%로 전년 동기(65.8%)에 비해 큰 폭(15.1%p)으로 하락했다[그림1]. 이를 월별로 나누어 보면 1월과 2월에는 '19년과 '20년 간에 별 차이가 없다. 실제 여행시장의 급랭은 2월에 시작되었으나 지난 3개월 간 누적 경험률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3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8.5%p 낮아졌고(66.0%→57.5%), 4월에는 14.6%p, 5월에는 16.6%p 차이로 벌어졌다. 5월에 처음으로 50% 아래(49.7%)로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3월~5월 사이의 실제 숙박여행 비율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3개월 내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3개월 내)

[단위: %]



Q.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주 500명, 월 2,000~2,500명 조사)

지난 6월은 51.7%로 전월(49.7%) 보다 2.0%p 상승해 3~5월의 극침체기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7월은 58.4% (전월 대비 6.7%p 상승)로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억눌려 온 여행 욕구에 여름휴가 시즌 영향이 더해진 일시적 효과로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 여전히 전년 동월 70.4% 보다 12.0%p나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믿을 수 있는 숙소는 집과 텐트

숙박장소 유형별 점유율에도 큰 변화가 있다. '20년 2분기 기준, 지난 3개월간 숙박유형 점유율은 '가족/친구 집'이 22.7%로 1위 였고, 그 뒤를 호텔(21.9%)과 펜션(18.8%)이 따랐다[그림2]. 작년 동기 1·2위였던 호텔과 펜션의 점유율은 각각 0.7%p, 1.8%p 감소하며 4.2%p 증가한 가족/친구집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가장 큰 감소는 콘도미니엄(10.9% → 8.4% ; -2.5%p 감소)에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여행객의 숙소 선택 기준은 크게 바뀌었다. 숙소 자체의 청결, 안락, 편의성보다는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캠핑/야영'은 불편하지만 내 소유의 침구·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현재 점유율은 4.8%로 크지 않지만, 전년 동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림2] 숙박유형별 이용경험 점유율 및 특성

국내여행 숙박유형 점유율 ('20년 2분기)



Q. 'OOO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숙박유형별 여행 특성

[단위: %]

		국내여행 전체 (사례수)	친구/가족 집 (749)	캠핑 (159)
여행자 특성	성	남성	50.7	58.0
		여성	49.3	42.0
	연령	20대	18.2	13.7
		30대	21.0	33.1 ▲
		40대	24.1	36.3 ▲
		50대 이상	36.7	17.0 ▼
	가구 상황	미혼	35.6	25.5 ▼
		신혼기	7.1	10.3
		자녀 유아가	19.5	40.8 ▲
		자녀 성장기	8.8	6.6
여행행동	숙박 여행 횟수	1회	57.8	35.9 ▼
		2회	28.2	31.4
		3회 이상	14.0	32.7 ▲
	평균 여행 기간	1.98일	2.11일	1.73일
	평균 동행자수	3.1명	2.7명	3.7명
	주 활동	1위 휴식 (25.5)	친척/지인만남 (44.8)	휴식 (44.6)
		2위 자연감상 (24.3)	자연감상 (12.3)	자연감상 (30.2)
	1인 평균 여행 경비	20.0만원	16.3만원 ▼	10.4만원 ▼

Q.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Q. 최근에 다녀온 여행은 몇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Q. 본인을 포함해 몇 명이 함께 여행을 하셨나요?
Q.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Q.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 뜨는 캠핑/야영, 여행 산업 바꿀까

코로나 이후 숙박여행에서 점유율이 커진 숙소는 '가족/친구 집'과 '캠핑/야영'이다. 상대적인 증가폭으로 보면 '캠핑/야영'이 가장 커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행 숙소로 가족/친구집과 텐트를 선택한 사람들, 즉 자통제형 숙소 이용자의 특성을 정리했다.

'가족/친구 집' 이용자는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캠핑/야영' 이용자는 큰 차이가 있다. '캠핑/야영' 이용자는 30-40대가 69.4%로 국내 숙박여행객 평균(45.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녀 유아가 부모 비중(40.8%)도 전체(19.4%)의 2배가 넘었다. '캠핑/야영'은 30-40대 중심으로,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50-60대는 30-40대와 달리 '가족/친구 집'의 이용이 많았다.

여행자 특성 뿐 아니라 여행행동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캠핑/야영' 이용자는 전체에 비해 '더 자주'(3회 이상 32.7%), '더 많은 일행'(평균 3.7명)과 '초 단기간'(평균 1.73일), '휴식'(44.6%) 목적으로 다녔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경비는 10만4천원으로 전체 평균(20.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훨씬 더 적은 경비로 자주 다닐 수 있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벗어날 수 있다면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로 꿈꿨던 여행욕구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근거리, 단기간, 저비용 추구성향은 더욱 강해지고, 숙박여행에 대한 불안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을 계획하는 비율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계획의 실현 의지는 유동적이고 [참고. 7월8초 여름 여행계획, 마음은 작년수준. 실재는?] 길고 지루한 장마는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최근 여행 소비자의 숙박행태 변화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새롭게 뜨고 있는 대안인 '캠핑/야영'은 여행경비를 1/2로 절감시켜 주고 있으며, 근거리·단기간·즉흥성 등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에 잘 맞는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안한 상황을 피하며, 자기 뜻대로, 더 자주 즐길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여행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최수정 컨슈머인사이트 대리	choisj@consumerinsight.kr	02)6004-7627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